

# 여 “인화학교 비극 청와대도 책임” 야 “대통령 측근비리 왜 수사않나”

##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

국회의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영화 ‘도가니’로 불거진 장애아동 인권 침해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또한, 여당 의원들은 범야권의 박원순 후보에 대한 집중 공세를 이어갔으며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이날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대정부 질의를 통해 “최근 영화 도가니를 통해 국민여론이 들끓자 정부가 뒤늦게 조치들을 발표한 것이 답답하다”며 “정부의 늦장 대처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조전혁 의원은 “인화학교의 비극과 관련해 종합백서를 꼭 발간해야 한다”면서 “학교의 실무담당자, 실무교육청공무원, 검찰과 경찰, 법원, 교육과학기술부와 청와대까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김학재 의원은 “올해 들어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 은진수 전 감사위원, 김해수 전 청와대 비서관, 김두우 전 홍보수석 등이 구속됐고, 신 전 차관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여러 의혹을 받고 있다”며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철저하

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기춘 의원은 “측근 비리가 줄줄이 터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며 다른 나라 이야기하듯 한다”고 가세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검찰이 신 전 차관을 수사하지 않고 이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압부형 중인 형과 친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며 “이 회장의 입을 막고 협박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지난 9월 중공고속도로 남이천IC 신설 사업 허가와 관련,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 수차례 불가 판정을 받다가 지

난해 불과 1주일 만에 허가가 됐다”며 “이 IC에서 5분 거리에 이 대통령 상대 후보를 향해 파상적인 네거티브 공세를 편 반면 야권은 정책 행보에 치중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박 후보의 병역논란과 관련,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여성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 “박 후보의 작은할아버지는 1936년에 행방불명이 됐다. 일본에 강제 징용에 간 사실이 없는 것”이라며 “박 후보 측에서 계속 병역관계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가) 북한을 자극해

# 오늘부터 공식선거운동... 여야 격돌

한나라 “박, 병역문제 계속 거짓말”... 네거티브 공세

민주당, 여성·맞벌이 부부 표심잡기 등 정책행보 치중

10·26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둔 12일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한나라당은 상대 후보를 향해 파상적인 네거티브 공세를 편 반면 야권은 정책 행보에 치중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박 후보의 병역논란과 관련,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여성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 “박 후보의 작은할아버지는 1936년에 행방불명이 됐다. 일본에 강제 징용에 간 사실이 없는 것”이라며 “박 후보 측에서 계속 병역관계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가) 북한을 자극해

역을한 장병이 수장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요지의 박 후보 발언을 문제삼으며 “북한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에게 서울시장을 내줄 수 없고, 내줘서도 안 된다”며 ‘색깔공세’를 했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제보에 의하면 박 후보의 작은할아버지에게 딸이 있었는데 1936년~1937년경 사할린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며 “제보가 사실이라면 작은할아버지는 딸이 태어나기 이전 사할린에 가 있었다는 예시로, 1941년 형남에게 나온 영장을 자신이 대신 이행하기 위해 사할린에 강제

징용했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는 이날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함께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과 맞벌이 부부에 대한 표심잡기에 나섰다.

박 후보는 오전 서대문구 흥은어린이집을 방문, 국공립보육시설 확대와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을 약속했다. 그는 “동별로 2개 이상 국공립보육시설을 확보하고 보육교사의 신분 불안과 낮은 급여 문제를 해결해 보육에 대한 열정을 높여야겠다”며 “우리 사회는 이미 보편적 복지 시대로 가고 있다. 사회를 보육·교육·주택 등으로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MB 호남검찰 차별... 요직 한명도 없다”

해남출신 민주당 김학재 의원 영남편중인사 집중 추궁

해남 출신의 민주당 김학재 의원(비례대표)이 12일 교육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MB) 정부에서의 호남 차별 인사와 호남 중소기업 도산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국무총리와 법무장관을 몰아붙여 주목을 끌었다.

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정부 부처, 공기업의 인사는 TK(대구·경북), 고대 출신이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고 호남 차별인사는 도를 넘었으며, 호남의 중소기업들은 상당수가 도산해 지역경제가 위중한 상황”이라며 말문을 연 뒤 김학재 의원은 “권력기관장인 국세청장인 TK출신이고 검찰총장, 경찰청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고래대 후배 일 뿐 아니라 MB정부 100대 요직

의 출신지를 보면 9월 현재 영남출신이 43.8%”라며 “영남 출신이라고 해서 출신 아니면 국정운영이 어렵다고 보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특히 권재진 법무장관에게 “검찰 8대 요직인 법무부장관·차관·검찰총장·대검찰장·서울중앙지검장·검찰국장·대검중수부장·공안부장 등 여덟 자리에 호남 출신이 한 사람도 없다”며 “군사정권 때도 요직 중 1~2자리 정도는 호남에 할애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검사장으로 승진한 8명 중에, 또 고검장급 9명 중에 호남 출신은 한 사람이다. 호남출신

들의 씨가 마를 지경”이라며 “이렇게 호남출신 간부들을 차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고 물어세웠다.

또 김 의원은 김 총리에게 “광주·전남 지역에는 중형건설업체 대부분이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이 진행 중이며 호남기업들 상당수가 세무조사를 받거나 도산했다”며 “어려운 처지에 빠진 호남 기업들에 대해 예정을 가지고 도와주실 방안은 없느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국가와 국민의 재산인 국유림을 사유화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하다”며 “백운산과 지리산 학술림은 서울대에 넘길 게 아니라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해서 영구보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네가 서울의 희망” 박원순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흥은동 흥은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들의 공연을 본 뒤 한 어린이를 안아보고 있다.



“범여권 세 결집”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8·24 서울시민의 힘’ 출범식에서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사저 건립용으로 내곡동 부지를 매입한 것에 대해 청와대의 책임 있는 해명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등 파상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또한, 내곡동 부지 인근에 대통령 형인 이상득 의원이 땅을 보유하고 있다고 거론하고 대통령 선영 인근 고속도로에 나들목(IC)을 신설하게 된 것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 아들이 공시지가

# 靑, 내곡동 사저 경호동 축소 검토

민주당, 부지 매입 해명·진상규명 요구

보다 싸게 사고 국가는 3배로 샀다고 하면 대통령 아들의 부담을 국가가 떠맡든 것 아니냐”며 “이것이 사실이려면 실수나 실수가 아니라 국민 세금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경호처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부지매입 대금을 지원한 의혹을 제기한 이용섭 대변인은 시형씨의 취체에 탈루 의혹과 증여세 회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3.3㎡(1평)당 매입가격을 살펴보면 시형씨는 800만원인데 대통령실은 2천9

만원으로 동일지번 동일토지에서 이 중가격 거래가 이뤄졌다”며 “사저 부지 매입비를 예산에서 충당해준 의혹이 짙다”고 대통령실의 배임죄 위반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 낮을 경우 공시지가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며 “시형씨는 실거래가 격보다 낮게 샀음에도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취득세를 냈기 때문에 100% 취득세 탈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민주당 ‘옥매트 횡령’ 윤석용 고발

민주당은 12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기부된 옥매트를 횡령했다며 서울남부지검검찰청에 고발하는 등 공세를 강화했다.

민주당 ‘윤석용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비리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장병안 의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을 맡고 있는 윤 의원이 2010년 12월 장애인체육회의 공식후원사인 ‘장수돌림’ 사로부터 옥매트 900장을 후원

받았지만 150장만 체육회 산하기관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따르면 윤 의원은 나머지 750장의 옥매트 가운데 500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복지법인 산하 복지관에, 나머지 250장은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의 5명에게 전달하여 각 선거구에 돌려줬다.

한편,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선단직원 50여명을 투입, 이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부실채권(못 받은 돈) 회수대행전문

### 대여금·거래대금 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 각종 못 받은 돈

- 선수금 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 수수료(회수 금액의 30% 이내)
-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여) (아르바이트·시간제 가능·연령 무관)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광주·전남·전북 센터장 모집)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새한신용정보|주|

062-232-7770, 010-4608-6061 (담당:김정수)

## 남성 성기능 강화제

본제품은 왕라, 복분자, 구기자, 갈근 등 20여가지의 한약재로 제조하였으며, 특히 왕라는 허브의 일종으로 자양강장역할을 하여 다미아나 혈관과 호르몬계의 도움이 된다. 단백질을 저장하는 힘을 둔구어 근육을 강하게 해준다는 류큐나프린스를 주성분으로 하여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설치방법 및 제품특징

- 평소에 발기는 되나 지속성이 없거나 조루가 있는 분들은 성관계 전 약 2-3시간전에 1정을 설치하면 1-5일까지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 발기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분들은 1일 4정을 3-7일 정도를 연속으로 설치 하시면 발기가 잘됩니다.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직접 드셔보시고 확인하세요.

문의 전화 010-7705-2535 전문즉시택배 무료배송

### 현대공인중개사 토지 매매

- ▶ 자연녹지(물류창고 공장지형) 광산구비이동, 비아 IC에서 5분거리, 11,463㎡(3,468평) 3.3㎡당 70만원
- ▶ 계획관리지역(물류창고 공장기타용도가능) 광산구 송학동, 나루 IC에서 3분거리, 21,914㎡(6,630평) 매매가 22억
- ▶ 계획관리지역(전원주택, 연수일 공장, 창고, 투자, 기타) 광산구 양동, 용성자동차 학원인근, 28,845㎡(8,726평) 대지 약 800평, 건축물 있음, 매매가 13억
- ▶ 준주거지역(병원, 사옥, 임대용상가건물신속부지적합) 화정동, 광산구도교변, 지하철역부근 대지1,520㎡(460평) 3.3㎡당 300만원

###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매매

- ▶ 통일동, 지상6층건물, 보증금1억2천만원 월920만원 매매가13억5천만원
- ▶ 용봉동 지상4층 보증금2억2천월810만원 매매가13억

### 수익성 좋은 다가구 주택

- ▶ 화정동, 4층건물, 원룸10실, 투룸3실, 쓰리룸2실, 4층 본인 거주 보증금9천 월400만원 매매가5억8천만원

### 공장 건물 매도

- ▶ 광산구 우산동, 광주광역시 인근 대지2,975㎡(900평) 건평 594.5㎡(180평) 매매가18억

◁대구>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토지

■ 본 광고물건은 전속 계약된 물건입니다

T. 062)371-1900, 010-2006-0115  
삼우 우리빌딩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 수원지구 상가 분양 전문

### 학원·병원 한의원·고급식당

1층 근린생활 2층~7층 까지

20평 부터 200평 까지

### 분양·임대가능

국민은행뒤 대방2차 정문 (5,000세대)

신한은행뒤 모아엘가 아파트 (5,000세대)

롯데마트앞 대방5차 후문 (7,000세대)

즉시입주가능 시비없음

신한공인중개사 ☎ 062)961-3377

##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인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소득까지(무료상담)

### 근린시설

- 북구 오치동 3층상가주택 대지58평 건평112평 김장가12억6천만 최저가1억8천만
- 동구 동명동 조대앞 4층고시원 대지66평 건평145평 김장가 4억8천만 최저가 3억8천만
- 서구 송촌동 3층다가구 대지70평 건평147평 김장가 4억2천만 최저가 2억9천만

### 단독주택

- 광산구 운남동주택 대지 223평 건평 28평 김장가 2억4천만 최저가 1억7천만

### 근린주택

- 서구 농성동 3층상가주택 대지99평 건평155평 김장가 4억5천만 최저가 3억1천만

### 상가매매

- 남구 월산동 4층상가주택 대지 34평 건평 76평 1층상가 2-3층다가구 4층입점(도시가스, 리모델링) 매매가 2억5천만(조정가)

### 토지매매

-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임야 1200평 진일로있음 관리지역(일부 전) 매매 평당3만5천(조정가능)
- 신안군 지은면 고장리 외기해수욕장앞 101평 계획관리 매매 평당20만원

광주 남구 월산동 구 서부경찰서 사거리  
T. 010-4911-4989 FAX. 062-226-3607